

# 출판학 정초 다지는 책 점차 는다

과학적 이론서 잇달아 선보여... 현장비평 치중한 출판론도 활기

해방이후 우리 출판의 역사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서들이 심심치 않게 출간되고 있다. 기왕에 출판학 분야의 서가를 채우고 있는 책들이 교정보는 법이나 레이아웃 등 제작에 관한 기술들을 상세히 소개한 서적들이거나, 책만드는 일을 신앙처럼 받들었던 제1세대 출판인들이 쓴 자서전적 분위기가 짙은 출판론들이 다수를 차지했다면 근래들어 출간된 「출판사회학」(타래)이나 「한국 출판문화 변천사」(타래) 「출판상황론」(청한) 「출판비평론」(보성사) 등은 그동안 출간되어 있던 「출판운동의 상황과 논리」(한길사) 「우리시대 출판운동과 오늘의 사상신서 101권」(한길사) 「한국출판론」(대광문화사) 「한국출판문화사 대요」(청림) 등과 연결되면서 해방이후 우리 출판의 변천사와 출판문화사의 대강의 일개를 살필 수 있게 한다.

## 눈길끄는 젊은 출판학자들의 논문단행본들

백운관(대전전문대 강사) 부길만(한길사 편집부장)씨가 중앙대 신방대학원에 제출했던 학위논문을 책으로 엮은 「한국출판문화변천사 - 도서유통의 성립과 발전」(타래)은 한국 출판문화의 역사를 典籍이나 출판물 중심으로가 아니라 출판물의 생산자와 보급·수용자, 즉 출판문화 주체들을 중심축으로 하여 한국 출판문화의 변천사를 살핀 저술이다. 조선중기 이전까지 책은 소수 특수인분을 위한 고급문화로 기존의 정치·사회질서와 그 사상을 강화·존속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폐쇄된 범위내에서 도서의 생산·보급·항유가 이루어지다가 일반대중에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친 조선중기 이후에 들어서다. 이때 상업출판물인 坊刻本이 등장하여 도서수용자가 부녀자층에서부터 사대부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확산되었다. 조선중기(16C)는 그런점에서 우리나라 출판물유통사에서 획기적인 분기점이 된다.

해방이후 1980년대까지 출판물유통사는 크게 5시기로 나뉜다. 제1기 해방이후부터 정부 수립까지는 그동안 억눌렸던 우리말에 대한 갈구가 한꺼번에 분출되어 '판매자 시장(seller's market)'을 형성할 정도로 활발했으나 곧이어 출판물의 범람과 경제적 혼란, 용지난을 겪게 된다. 제2기 정부수립부터 1950년까지는 좌우익 대립과 6·25전쟁, 그 후유증과 복구사업으로 도서판매도 피난시설의 수개월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침체를 면치 못했

「출판사회학」은 '術' 중심의 기존의

出版史가 '과학적'으로 분석·

정리되어야 할 때임을 일깨운다.

그만큼 우리네 출판관련 저술들이

'평면적'이라는 얘기인데, 최근 출판학

연구자들의 학위논문들이 속속

단행본화하는 데서 답을 깨고 있는

노력들이 보이는 것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다. 제3기 1960년대는 대중사회·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때로 출판계에서는 교양도서간행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이중에서도 전집류의 기획출간이 성행하면서 서점에 의존하던 판매가 외판으로 바뀌어갔다. 제4기 1970년대는 독재체제가 강화되고 민주주의의 시련이었던 때였으나 역으로 독서대중의 의식이 급속히 발전해나가 이른바 '사회과학서적'들이 새로운 판매시장을 형성하였고 출판물도 이전보다 다양화·대중화가 되었다. 제5기 1980년대는 대중들의 의식이 고양되고 대중의 정치사회적·문화적 역량이 성장함에 따라 출판에서도 다원화된 출판역량이 성숙되었고, 출판물의 양적 팽창도 두드러졌다.

전영표(신구전문대 출판과) 교수의 「韓國出版論」(대광문화사)은 '출판 잡지 교과서 저작권 연구'라는 부제에서 보듯 출판뿐 아니라 관련 부문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韓國 文庫本의 어제와 오늘」에서 이제는 그 명성이 스러져가는 문고본의 역사를 살필 수 있다. 안춘근씨가 년전에 펴낸 「韓國出版文化史大要」(청림)은 '出版惡法下的 출판' '出版企業과 금서정책' '민족해방과 출판자유' '全集출판과 創作出版' '광복후 10대 출판물' 등에서 일제하와 광복후의 국내출판 상황을 비증있게 기술하고 있는데, "무엇이나 책으로 출판하기만 하면 '洛陽의 紙價'를 올리던 황금시기인' 해방후 몇년간이 지나고 전쟁후 "모든것이 烏有로 돌아가고" 난 다음 나타난 눈에 띄는 현상으로 '全集' 붐을 든다. 한국저작으로 「韓國文學全集」 「한국역사소설전집」 「한국야담전집」 「한국신작전집」 등과 외국번역물로 「세계문학전집」 「위인전기전집」 등이



출판관련 저서들이 기존의 '術' 중심의 기술에서 벗어나 다양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당시 성공한 전집 다음으로 사전출간이 두드러졌는데, 6권짜리 「큰사전」이 을유출판사에서, 전7권짜리 「대백과사전」이 학원사에서 출간되면서 대·중·소 사전이 속출했다. 당시 출간된 대부분의 사전이 판로가 넓은 국어사전이나 대백과사전류에 치우쳤는데, 저자는 전문사전이 고루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백과사전이 앞다투어 출간된 것을 先後가 바뀐 일로 지적한다.

70, 80년대 이후의 출판계를 조망하는 데는 현장비평적 시론모음이 몇권 있다. 작년에 나온 이두영(출협사무국장)씨의 「출판상황론」(청한)은 '80년대 한국출판론' '출판사 폭증현상의 의미' '한국인의 독서실태와 환경' '출판유통론의 발전' 등의 관에서 한국출판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 저자는 80년대의 한국출판상황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출판계의 자생력을 키워온 시기로 규정한다.

## 커뮤니케이션理論으로 출판현상 분석

'우리시대의 출판운동에 대한 한 출판인의 현장보고'라는 부제가 달린 김언호(한길사 대표)씨의 「출판운동의 상황과 논리」(한길사)는 격동의 70,80년대를 "한 시대 한 사회의 정신적·물리적 역량의 총체적 귀결인 '책'" 만드는 일에 쏟았던 한 출판인의 체험적 현장 비평서다. 책만드는 일이 민족사회의 격동과 무관할 수 없다고 말하는 저자는 '우리시대 출판운동의 민족주의적 구조' '민족 출판운동론' '금서와 우상' 등의 글을 통해 우리의 출판문화가 어떤 이념과 논리를 추구하는지 살피고 있다. '교양'과 '문화'를 담보하던 책이 이 시

기를 통하여 사회변혁의 '도구'로 기능이 확대된 과정을 보여준다.

해방후 한국 출판의 역사나 성과 등을 살필 때 시론적 성격의 현장비평서나 통사형식의 출판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출판관련 저술의 현황이었다면 최근 출간된 「출판사회학」(타래)은 출판의 사회적 현상을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입각하여 과학적으로 분석을 시도해 눈길을 끈다. "학문의 독립된 영역으로 자리잡기에는 아직 그 역사나 연구방법이 일천한 출판학 분야에 '과학적' 연구방법론을 동원하여 저술하였다"고 자평한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출판사회학 연구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적 논의에서부터 다매체 경쟁시대에서 출판의 미래를 가능하는 한편, 출판의 사회적 기능이나 현상 등에 대해 다양한 분석틀을 이용해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는 분석이론을 통한 결론의 도출이 없이 갖가지의 방법론만 제시되고 있을 뿐이어서 저자 자신이 밝히고 있듯 '術' 중심의 기존의 출판사가 '과학적'으로 분석·정리되어야 할 때임을 일깨워주었다는 데서 의의를 찾아야 할 듯하다. 그만큼 우리네 출판관련 정리가 '평면적'이라는 얘기인데, 현재 나와 있는 이 부분의 저서들도 대개가 공통된 하나의 자료에 서로 기대어 '해석없이' 빌어쓰는 식의 서술이어서 '새로운 시각'의 논의를 찾기도 문 점도 이를 입증한다 하겠다. 최근 출판학 연구자들의 학위논문들이 속속 단행본화하는 데서 답을 깨고 있는 노력들이 보이는 것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 정혜옥기자